

바다에 친 그물 한계...해수부도 "일부 유실 불가피"

정부, 쌍끌이 어선·유자망 등 3단계 저지선 효과 의문

전문 잠수사들 "가족 동의 얻어 선체 인양 서둘러야"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DNA검사 결과 전)되는 시신이 침몰지점에서 2.2km 떨어진 동거차도 앞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시신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유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해역 바닷속 사정을 잘 아는 어민들과 서해해역도 시신 인양 작업 등 다수의 해난구조 작전에 참여했던 잠수 전문가들은 "육지가 아닌 바닷속에서 일어난 침몰 사고는 신속한 시신인양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신유실 방지대책을 이끌고 있는 해수수산부도 "사실상 일부(시신) 유실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난 시신 유실' = 시신 유실 우려가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달 30일 미역 양식장 방재작업에 나선 이옥영(48)씨가 안전 단원과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부터다. 해경은 옷차림, 외모 등에 미뤄 이 시신이 단원과 여학생으로 보고 있다. 시신을 발견한 어부 이씨는 당시 동거차도 주민 2명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오일 펜스를 바로 잡던 중이었다. 조류가 거칠어 오일 펜스를 고정시키는 맛을 견뎌올리는 과정에서 조명한 낙산사에 얽혀서 올라온 시신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침몰 지점 8km 이내 해역을 감시하는 해경·해군의 감시선을 뚫고 시신이 어부에 의해 발견되자 시신유실 방지대책본부의 맥이 풀린 모습이다. 시신유실 방지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육지와 달리 바닷속 선박 침몰 사고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 콤포스로 지도에 원을 그리 듯 주

욱 선을 긋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며 "정부에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믿을 수 있나 = 정부가 밝힌 시신유실 방지대책은 3단계 저지선으로 이뤄져 있다. ▲1단계 저지선은 침몰지점에서 동서방향으로 7km 떨어진 해역에 폭 5km 가량의 자망을 고정시키고, 북서쪽 방향 15km 지점에 폭 8km의 자망의 양 끝을 맞으로 고정시킨 선이다. ▲2단계는 침몰 지점에서 8~15km 떨어진 수역이며, 정부는 160t급 쌍끌이 어선 8척을 동원해 시신 유실을 막고 있다. ▲3단계는 침몰지점에서 15km 안팎 떨어진 해역으로 정부는 안강망 90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민과 공무원, 해경, 해군 등 수색인원 1300명과 선박 200여척, 항공기 34대를 동원하여 시신 유실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대해 어민과 시신 인양작업 경험이 많은 전문 잠수사들은 "현 상황에서 상당 수 시신 유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구조·수색 과정에서 선체 유리창이 깨지거나 출입문이 망가져 그 틈으로 선체를 빠져나온 시신이 빠른 조류를 타고 먼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시신 유실 발생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실종자 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 선체를 그물로 겹겹이 에워싼 후 선체를 인양하는 게 최선의 유실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임준표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고교생 화재 대피 훈련 재난대응 실전 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석산고등학교(교장 주태술)에서 1일 오후 화재발생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 참가한 석산고 학생들이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 / 김진수 기자 jeans@

소방방재청 매년 형식적인 훈련 들통날까 두려웠나

재난대응훈련 잠정연기 논란

정부, 시스템 점검해도 부족할 판에

12~14일 실시 하려다 돌연 연기

매년 5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올해는 갑자기 중단됐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어 잠정 연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훈련을 연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재난대응훈련이 들통날까봐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5월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총 330개 기관이 참여해 지진 및 취약분야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계획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변화된 안전환경 대응능력 제고와 학교를 통한 지역 재난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식중독 등 학생건강분야 훈련(12일), 지진·지진해일 대피

훈련(13일), 실험실 위험물 안전점검 훈련(14일)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지난 21일 교육부에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잠정연기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곧바로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했고,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잠정연기 여부'가 검토중'이라며 '각종 회의나 설명회 등 훈련 관련 준비사항을 잠정보류하고 대외홍보도 중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재난대응훈련이 절실한데 왜 갑자기 연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서구 A중학교 한 교사는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난대응 시스템 부재에 원인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전 훈련이 절실한데 왜 연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 B고교 교사도 "세월호 참사 탓에 재난대응훈련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매년 형식적으로 해오던 학교에서의 훈련이 들통날까봐 미룬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 기존 학교 현장 훈련은 안전교육, 대피훈련, 안전문화 순으로 진행되지만, 대부분 대피 동영상만 시청한 뒤 20여분간 운동장에 모였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어 대규모 훈련을 잠정연기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매일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상시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햇볕 집회 민노총 노조원 수사 의견 분분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햇볕 집회를 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본부 소속 노조원 800명이 지난 30일 밤 8시5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2.5km 떨어진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까지 집회를 하던 중 햇볕 30개를 만든 데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

○경찰은 애초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다른 만큼 집회 주최자인 민노총 광주본부장 등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아 햇볕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입장.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바닷속 제아들 망가져가는데... 어서 꺼내주세요"

가족들, 총리에 조속 인양 촉구

"총리님, 제 아들 좀 어서 바닷속에서 꺼내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제 아들 모습이 망가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세월호 침몰 16일 째를 맞는 1일 진도 실내 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실종자 가족들은 애원하다시피 "총리가 앞장서서 조속한 시신인양 작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지 보름이 넘고 해수 온도도 점차 높아져 시신 유실과 함께 훼손(부패)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리를 마주한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시신인양 작업을 총리가 직접 약속해 달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시신을 수습한 유족들로부터 시신 상태를 전해 듣고, 전남 해경과 해군의 감시선을 뚫고 어부에 의해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시신 훼손과 유실을 염려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 1일 어부에 의해 발견된 희생자도 옷차

림과 머리 스타일로 미뤄 단원과 여학생으로 추정되지만, 육안으로 신원 파악은 힘든 상황이라고 해경은 전하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미리 수거한 DNA 샘플과 희생자의 DNA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이를 전 실종된 조카(단원) 2년 남학생)의 시신을 수습한 유모(47·여·수)씨도 "발견 당시 눈과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이 상당히 부패된 상황이라 조속한 인양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습될 시신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하기 힘들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잠수사들이 속도를 내 시신을 빨리 인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실종자 가족과 안전서 내려온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정 총리는 "어제부터 오는 사이 수협중앙회장과 진도수협장에게 군 어민(어선)이 모두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백희준수습기자 bhj@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

NAVER 7년이상 단비플라워 등 7년이상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